

제4권 (3단원 : 주님을 모신 가정)

(제17과)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가정

- 본문 : 에베소서 6:4
- 요절 :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 찬송 : 369장(새찬송가 218장), 442장(새찬송가 569장)

예로부터 자녀의 출생은 그 가정에 큰 기쁨을 주며, 또한 부모는 그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온 정성을 쏟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들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사회 환경이 복잡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란해진 때일수록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남들이 좋다는 방식을 따라서 자녀를 교육하는 데 물질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붓지만, 오히려 교육 환경의 극심한 변화에 우왕좌왕하다가 점점 자녀 교육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녀로 하여금 학교 공부나 예능을 익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온전한 인격체로 양육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곳은 부모의 사랑과 훈계가 있는 가정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자녀를 양육한다면 이보다 더 나은 방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람직한 자녀 양육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자녀를 원만한 인격체로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엡 6:4)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거나 반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달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중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부모가 자기 감정에 못 이겨 타당한 이유 없이 자녀를 나무라거나 벌을 준다거나 하면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할뿐더러 부모에 대하여 반감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징계할 때에는 그 까닭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서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삭의 가정과 같이 부모가 어느 자녀를 편애하거나(창 25:28), 혹은 사울 왕과 같이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삼상 20:24~34).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는 일 역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뢰는 자녀를 건전한 인격체로 양육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긴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이 자녀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본받아 책임감 있는 자녀로 양육될 것입니다.

2.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고 하였고,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같이, 부모들이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면 이로써 자녀가 좋은 습성을 갖게 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십시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양육된 결과 초대 교회 당시 가장 칭송받는 목회자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그들은 부친 엘리의 방임적인 양육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을 애지중지한 나머지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징계하기를 태만히 하였는데, 그 때문에 그의 두 아들은 방종한 사람이 되어 불신앙과 부도덕한 삶을 좋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히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송 생활을 하게 하며,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는 물론이요,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솔로몬처럼 한평생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없지만, 말년에 그는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깨달은 진리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13)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참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하신 뜻을 순종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통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교육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뛰어난 학문과 예능을 닦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를 바르게 키울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자녀는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